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2026 년 11 월 8 일 오전 7 시 30 분에
로마 알바오 라지알레 모원에서
살바토리카, 마리아 아마비리스 몬지리 수녀님께서
SALVATORICA, Sr M. AMABILIS MONGILI
향년 94 세(수도생활 68 년)로 이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오늘 우리 아마빌리스 수녀님은 이 복음말씀을 듣고, 등불을 켜고 신랑, 즉 수녀님이 사랑하고 충실하게 섬긴 선한 목자를 빠스또렐라의 마음으로 만나러 갔습니다.

살바토리카 수녀님은 1932 년 5 월 23 일 세딜로(OR) 에서 태어났으며, 같은 해 5 월 29 일 세례자 요한에게 봉헌된 마을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4 년 12 월 31 일 알바노 라지알레에 있는 모원으로 입회하였고, 1957 년 9 월 2 일 수련에 들어갔습니다. 1958 년 9 월 3 일 첫 서원을 하여 마리아 아마빌리스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첫 서원 후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 머물렀고, 1959 년에는 트란사쿠아(TN) 로, 1960 년에는 알비아노로(TN) 파견되었습니다.

1963 년 9 월 3 일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종신 서원을 했으며, 종신 서원 청원서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수도서원과 회칙에 충실할 것을 약속하며, 수도회를 내 가족처럼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종신 서원 후 수녀님은 프레마디오 발디덴트로(SO)로 보내져 1965 년까지 머물렀습니다.

아마빌리스 수녀는 초기 양성 시절부터 깊은 자비심과 희생 정신, 신중하고 강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묘사됩니다. 책임감 있는 수녀로, 젊은 여성들에게 다가가 는 능력이

있었으며, 유치원에서 헌신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수녀님은 일과 수도회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녔습니다. 수녀님은 관대하게 모원에서 수년간 전례에 봉사하는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프레마디오 발디덴트로(SO)에서 선교를 마친 후, 알바노 라지알레(모원)에서 쇄신하는 시기를 보냈고, 이후 주로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공동체에서 사도직을 이어갔습니다: 1966 년에는 신테 테시노(TN)에서; 1969 년에는 캄파라다(MB); 1970 년에는 체사노 마데르노(MB); 1973 년에는 베톨라 디 페스키에라 보로메오 (MI); 1976 년에는 세키아 성프로스페로(MO) 성당에서, 1984 년에는 알바노 라치알레(모원)에서 주로 제의방 담당으로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투병의 시기에 인내와 관대함으로 아마빌리스 수녀님이 평화롭게 이 시험의 시기를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돌봄을 제공해 주신 모원의 수녀들과 외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마빌리스 수녀님, 수녀님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기며 빠스또렐라로서 성소의 선물에 감사드리면서 온 인류 가족을 위해 평화의 선물을 주시도록 중재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민타 사르미엔토 뿌엔테스 수녀
총 장

2026 년 11 월 8 일, 로마
연중 제 32 주일